

5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테스트 안도+ 고용개선'에 급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상당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여 뉴욕증시는 상승하였음. 아울러 개장 전 미국 4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의 감소폭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가 최악은 지난 것으로 풀이된 것도 증시 상승에 일조를 했음.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64.80포인트(1.96%) 오른 8,574.65로 장을 마쳤고, S&P500지수는 21.84포인트(2.41%) 상승한 929.23으로, 나스닥지수는 22.76포인트(1.33%) 뛸 1,739.00으로 마감했음.
스트레스테스트 안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는 평가, 예상대로 스트레스테스트에 낙제한 금융사는 한곳도 없었고 추가 자본 확충 필요 수준은 앞선 언론의 전망을 크게 밑돌았음. 그간 월가를 압박하고 있던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 대해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금융주 랠리를 이끌었음. FRB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19개 대형 금융사들이 6,000억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746억달러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FRB가 요구한 유동성 확보 규모는 앞서 언론이 전망한 1,000억달러를 200억달러 이상 하회했고 자본 확충을 요구받은 10개 금융사 중 GMAC를 제외한 9개 은행이 모두 TARP로부터 빌린 돈 이하의 자본 확충 요구를 받았음. 신주 발행, 자산 매각 등 민간 차원의 자금 조달에 모두 실패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인 정부 보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만으로 자본 확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美 4월 고용 감소폭 둔화	미국 노동부는 전달 69만 9,000명 감소했던 고용자수가 4월 53만 9,000명 감소에 그쳤다고 이날 발표했고 이는 지난해 10월 38만명 이후 가장 적은 감소폭이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0만명 감소도 밑돈 수치임. 다만 실업률은 8.9%로 지난 1983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월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임. 노동부는 고용자수 감소가 둔화됐을 뿐 감소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실업률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6개월래 최고	국제 유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음. 8 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93달러(3.4%) 오른 58.64달러로 마감했음.

제목	주요 내용
"WHO '6단계 인상' 英·EU가 막아"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플루의 전염병 경보를 최종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막고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 신문은 복수의 WHO 관계자를 인용해 WHO가 유럽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영국과 스페인에서 '인체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5일 이후 내부 문서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6단계인 '판데믹'(pandemic)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
日토요타, 창사 첫 적자... "올해 더 악화"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창사 71년 역사상 최초로 적자를 기록. 토요타는 8일 2008회계연도(3월 결산) 4610억엔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 지난해 2조2703억엔의 흑자를 냈던 토요타는 1937년 창사 이래 71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9% 감소한 20조5295억엔을 기록. 토요타의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34만대 감소한 756만대를 기록.
中 4월 신차판매 115만대 '사상 최대'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4월 중국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115만300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3월보다 더 증가한 수치. 4월 미국의 신차 판매가 82만대에 그친 데 반해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증가해, 4개월 연속 세계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
韓, 세계 개도국 일자리 창출에 150만弗 지원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4년간 세계은행(IBRD)이 주관하는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기금(MDTF)`에 총 150 만달러를 출연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MDTF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의 참여로 지난해 설립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과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기금 총액은 우리나라 출연분 150 만달러를 포함 총 500 만달러에 달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첫 참여국가가 됐다.
생산자물가 상승세 주춤..2년7개월만에 최저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5% 오르는데 그쳐 지난 2007년 9월 1.0% 오른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12.5%(전년기준)에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음.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4.7%를 기록한 뒤, 2월에 4.4%, 그리고 3월에는 3.5%까지 내려온 바 있음.
IMF "올해 한국 경상흑자 선진국 8위"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경제전망 수정에서 선진 33개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예측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64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 207억 달러 흑자로 선진국 중 흑자 규모가 8위에 이를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적자로 선진국 중 21위였지만 불과 1년만에 13계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 이는 환율의 영향으로 올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분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